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구역 만들기 10

# 축복하는 사람들

| 정명철 지음 |

 콤란출판사



## 머리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기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할 때에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루 종일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금식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힘들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덧 열 번째 책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 한 권 발행할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가는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이 책은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 책을 가정에서 또는 구역에서 매주일 읽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십니다.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1월  
정명철 목사

01과	믿음으로 얻으라(창 13:14-18)	/ 7
02과	복음을 위하여(막 10:28-31)	/ 18
03과	사명(使命)(마 5:13-16)	/ 28
04과	심는 대로 거두리라(갈 6:7-10)	/ 38
05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21)	/ 49
06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엡 5:15-16)	/ 61
07과	지혜로운 건축자(고전 3:10~15)	/ 71
08과	쿠오바디스 도미네(요 13:36-38)	/ 81
09과	이런 지도자를 주옵소서(출 32:30-32)	/ 90
10과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사 58:6-12)	/ 101
11과	주님의 날(사 58:13-14)	/ 112
12과	기업을 얻을 자(엡 5:1-9)	/ 124
13과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9)	/ 134
14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갈 2:20~21)	/ 147
15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엡 2:20-22)	/ 158
16과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사 53:5-7)	/ 167
17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요 20:27-29)	/ 175
18과	하나님 앞에서(행 5:1-11)	/ 186
19과	자녀가 잘되어야 합니다(시127:1-5)	/ 197
20과	순종하고 공경하라(엡 6:1-4)	/ 206
21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골 3:18-21)	/ 216
22과	늦밤을 보라(민 21:4-9)	/ 226
23과	믿음으로(롬 3:20-26)	/ 237
24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요 4:21-26)	/ 247



25과	화평을 전하는 자(나 1:15)	/ 257
26과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히 5:12-14)	/ 267
27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신 6:1-9)	/ 277
28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시 50:14-15)	/ 290
29과	도전하라(삼상 17:26-30)	/ 301
30과	선포하며 살라(벧전 2:9)	/ 311
31과	사랑하라(요 13:34-35)	/ 322
32과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	/ 333
33과	찬양하라(시 150:1-6)	/ 343
34과	화목하라(롬 12:14-18)	/ 354
35과	항상 기뻐하라(살전 5:16)	/ 365
36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 375
37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	/ 386
38과	은혜 아니면(약 4:6)	/ 395
39과	감사절을 지키라(출 23:16-19)	/ 403
40과	왜 염려하십니까(마 6:25-34)	/ 414
41과	모세와 여호수아(신 31:1-8)	/ 425
42과	은밀한 중에 갇으신다(마 6:1-5)	/ 435
43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미 4:1-5)	/ 445
44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1)(눅 19:1-10)	/ 456
45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2)(마 15:21-28)	/ 467
46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3)(요 5:1-9)	/ 477
47과	은혜로 살았습니다(창 32:24-32)	/ 486



- 본 문: 창세기 13장 14-18절(구 17쪽)
- 찬 송: 550장(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통 248장)
- 요 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4-15)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 나가야 합니다. 달리기를 위해 출발 선상에 서면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 온몸의 세포가 다 일어서는 느낌으로 출발 총소리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1년을 잘 달릴 수 있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들을 돌이켜봅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은 해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사시사철 물이 있어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개 평안한 곳에는 죄가 많습니다. 이것이 참 이상합니다. 평안하고 풍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의 있던 곳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곳이 죄가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폭풍 같은 문제들은 모두가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다. 이들은 못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이 정도면 되는데 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억지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하다 보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억지로 가지려 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더니 오늘 13장에서 벌써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창 13:2)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만나고, 13장에 오면서 다시 네게브로 올라갑니다.

네게브 지역은 아랍이 점령하여 황폐화 된 후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버렸지만, 로마시대까지는 유명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네게브는 건조한 지역과 물이 있는 지역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게브란 말의 뜻은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많은 목축들이 한곳에서 풀을 뜯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친척이니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말합니다. 어디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는 곳으로 가고,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조카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먼저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땅이 형편없을지라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땅을 주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장소 탓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환경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신감이 올 한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 사람은 이미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상대방과 싸울 때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단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며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약속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 1. '네가 바라보는 땅'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가는 곳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롯도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복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복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도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복잡한 사람 만나면 나도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악한 길로 가게 되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불행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복된 사람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롯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 요르단을 바라보니 온 땅에 물이 넘었습니다. 그곳이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죄가 많은 곳이 더 화려하고 좋습니다. 애굽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갈릴리가 더 은혜가 많은 곳입니다. 애굽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지만 그곳은 죄가 주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그곳이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갈릴리 사람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과연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상이 많았고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것도, 그곳에 있다 보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곳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죄를 짓는 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사람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화려하고 굉장한 곳이라도 떠나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죄는 좀 지을지라도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진급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 때에 주변의 다섯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노예로 끌려가고,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기고, 재물을 다 빼앗기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가 있는 곳을 좋아하면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감을 구하고 아내감을 구할 때에 세상 조건을 따라 구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을 제일 중심에 놓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딸 신랑감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물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도 있고 다른 조건도 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기를 놓치고 나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믿음만 원하면 믿음을 제일 중심에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아직 내 땅이 아닙니다. 이곳에 가서 우물도 파고 가축을 보호할 우리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차지할 땅은 이미 만들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꿈을 가지면 그 꿈이 허황된 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시고 여러분이 꿈꾸었던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 2. 자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5)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창 13:16). 즉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복 주겠다고 하셨고, 창세기 15장, 17장, 22장에도 같은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유독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시는 것은 비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전할 때에 가능한 같은 말씀을 많이 반복하지 않도록 설교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설교집을 보면 같은 성경 본문들이 거의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 로마서 8장 26절 같은 은혜에 대한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축복에 대한 말씀 등은 자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씀을 자꾸 반복해 주셨습니다. 반복하면 잊지 않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된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비전과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당시에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국력이 약하면 자손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부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실 때에 자손의 복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곳곳에서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살았어도 노년에 자식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안에 울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대를 이어 잘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되면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학자가 되고, 문학과 예술 분야에 스타가 되고, 교수가 되고, 목사와 장로가 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된 사람은 원래부터 잘되는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 원래부터 안 되는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다가 잘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목동으로 살다가 다윗같이 왕이 되기도 하고, 목동으로 살다가 요셉같이 총리도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마다 받은 복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보면 아버지가 참 가난하게 목회하고 고생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요즘 말이 많은 강남의 무슨 병원도 그 할아버지가 장로회신학대학교 4회 졸업생(차형준 목사)인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만주지역의 선교사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일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복을 받아 의사가 되고 손자가 병원을 이어받았는데 그만 불법을 행하여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복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장로였으면 아들도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으면, 그 자녀들이 기도의 권능을 이어받아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의 복이 대를 이어 간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지켜주시고, 이삭 때문에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 때문에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그 복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대를 이어 믿음이 내려가고 자녀들이 다 잘되는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3.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창 13:18)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헤브론까지 왔으니 남쪽으로 상당히 내려온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다녀보라 했으니 주실 땅을 바라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상수리 수풀을 만납니다. 수풀이 있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가축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며 먼저 한 일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오늘날 미국이 그토록 많은 복을 받은 이유는 이들의 조상이 예배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도 제일 먼저 집을 짓지 않고 교회 먼저 지었습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저는 군 시절에 교회 간다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등병이 겁

없이 교회 가겠다고 하니 군기가 빠졌다고 매를 때립니다. 혼자 맞는 것은 괜찮은데 죄 없는 동기들이 함께 맞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일에 또 가겠다고 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주일을 지키겠다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예 교회 가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를 맞아도 가겠다고 했을 때 복을 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차지한 축복을 차지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적용

㉠ 오늘 말씀의 주제 파악하기:

.....  
 .....

㉡ 오늘 말씀 중 은혜 받은 부분 나누기:

.....  
 .....

㉢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  
 .....



###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

1. 한 해 동안 내가 바라보는 땅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2. 자손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3.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